Morning Meeting Notes

2024-09-24

내일의 차이 현대차증권

What's Inside

2차전지 산업(OVERWEIGHT) 8월 미국 전기차 판매 +20%(yoy) 성장 및 Ultium 판매량 급증
전기/전자 산업(OVERWEIGHT) Apple Intelligence가 불러올 on-device cycle
[크레딧] 빅 컷으로 안정된 시장, 부동산 PF 저축은행 신용등급 하향 압력 증가

New Issue

뉴욕증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 나스닥 0.14%↑
뉴욕채권,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발언에 채권 투자 심리 위축... 국채 약보합 마감
국제유가, 미국 경기 예상보다 둔화 되며 수요 둔화 불안감 커져... WTI 0.89%↓

New Publication

[전기/전자] Apple Intelligence가 불러올 on-device cycle(2024-09-24)
[2차전지] 수요 저점의 시그널들(2024-09-06)
[제약/바이오] 빅 웨이브 서핑: 제약/바이오 M&A를 돌아보면서 메가트렌드 파도타기(2024-09-05)
[게임] 게임의 법칙(2024-08-27)
[지주] Armageddon : 끝과 시작의 지주회사(2024-07-29)
[스몰캡] 실리콘 포토닉스가 불러온 글라스 기판 시장의 개화(2024-07-22)
[디스플레이] 중국 DIC 2024 탐방기 - OLED 패널 방향성 재확인(2024-07-10)
[스몰캡] The Coming Big Wave: 미국 학회 참석을 통해 본 반도체 변화의 물결(2024-07-01)
[중국 주식] 중국제조2025, Y-1 Review(2) - 중국제조2035의 시작(2024-06-28)
[반도체] 대만 COMPUTEX 및 기업 방문 후기: 대만 반도체 생태계 존재감 급상승(2024-06-14)
[경제/크레딧] 2024년 하반기 경제크레딧 전망 - Falling Slowly(2024-06-05)
[에너지/화학] AI, 이번에는 에너지다.(2024-06-04)
[투자전략/시황] 6월 증시: 정중동(2024-06-04)
[음식료/화장품] 2024년 하반기 산업 전망 - 2024 하반기에도, 거세게 커져가 Ah Oh Ay!(2024-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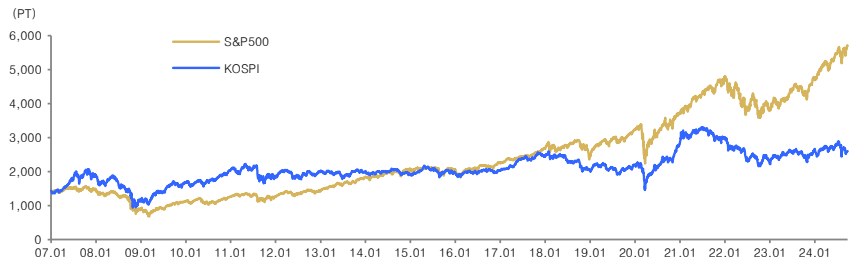
Rating, Target Price Changes

LG이노텍	INITIATION		▷	BUY	330,000 원 (2024-09-24)
LG전자	INITIATION		▷	BUY	150,000 원 (2024-09-24)
삼성전기	INITIATION		▷	BUY	200,000 원 (2024-09-24)
선익시스템	INITIATION		▷	BUY	64,000 원 (2024-09-19)
SK하이닉스	BUY	290,000 원	▷	BUY	265,000 원 (2024-09-13)
금호석유	BUY	200,000 원	▷	BUY	190,000 원 (2024-09-10)
삼성전자	BUY	110,000 원	▷	BUY	104,000 원 (2024-09-09)
LG에너지솔루션	BUY	450,000 원	▷	BUY	560,000 원 (2024-09-06)
LG화학	BUY	540,000 원	▷	BUY	510,000 원 (2024-09-06)
한미약품	INITIATION		▷	BUY	440,000 원 (2024-09-05)
리가켐바이오	INITIATION		▷	BUY	137,000 원 (2024-09-05)
셀트리온	INITIATION		▷	BUY	270,000 원 (2024-09-05)
현대로템	BUY	56,000 원	▷	BUY	64,000 원 (2024-09-03)
코스맥스	BUY	230,000 원	▷	BUY	180,000 원 (2024-08-30)

외국인 순매수		국내기관 순매수	
순매수	금액(백만)	순매수	금액(백만)
삼성바이오로직스	49,225	삼성전자	232,835
NAVER	31,494	SK하이닉스	138,083
삼성중공업	28,537	LG에너지솔루션	49,731
에코프로머티	19,363	NAVER	41,472
KB금융	18,794	효성중공업	34,745

외국인 순매도		국내기관 순매도	
순매도	금액(백만)	순매도	금액(백만)
삼성전자	-633,555	한국전력	-41,961
유한양행	-30,756	아이언디바이스	-34,766
알테오젠	-26,068	삼성전기	-33,858
HD현대일렉트릭	-20,438	KT&G	-25,356
LG화학	-18,911	삼성바이오로직스	-19,473

KOSPI, S&P 추이



국내시장 동향	종가	D-1(%)	D-20(%)
KOSPI	2,602.01	+0.33	-3.56
대형주	2,598.28	+0.40	-3.84
중형주	2,863.15	-0.03	-2.31
소형주	2,221.20	+0.05	-1.88
KOSDAQ	755.12	+0.91	-1.52

투자자별 매매동향 KOSPI	개인 (억원)	외국인 (억원)	기관 (억원)
순매수	3,713	-7,023	3,443
누적순매수(D-20)	62,076	-87,493	20,372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금액	D-1	D-20
(평균,단위 :억 원)	153,104	205,564	179,478

업종별 지수	종가	D-1(%)	D-20(%)
건설	70.55	-2.00	-7.71
금융	475.82	-0.13	-2.22
운수장비	2,678.25	-0.63	+1.00
유통	367.51	-0.92	-1.25
음식료	3,902.60	+1.26	-0.77
의약품	17,194.40	+1.85	+7.96
전기전자	24,795.36	+0.56	-9.99
철강금속	5,257.99	-0.32	+11.40
화학	3,899.06	+1.25	+0.85
유틸리티	748.09	-6.00	-6.21
통신	430.11	+0.02	+3.04

해외시장 동향	종가	D-1(%)	D-20(%)
S&P500	5,718.57	+0.28	+1.81
NASDAQ	17,974.27	+0.14	+1.40
일본	37,723.91	휴장	-1.01
중국	2,748.92	+0.44	-3.73
독일	18,846.79	+0.68	+1.23

주요 금리 동향	종가	D-1(bp)	D-20(bp)
국고채 (3년)	2.86	+2.60	-2.60
국고채 (10년)	3.02	+3.30	+4.80
은행채AAA (3년)	3.16	+2.20	-2.50
미국국채 (2년)	3.59	-0.80	-34.90
미국국채 (10년)	3.75	+0.85	-6.55

환율 동향	종가	D-1(%)	D-20(%)
원/달러	1,335.90	+0.51	+0.69
원/백 엔	930.18	+0.68	+1.33
원/위안	189.47	+0.51	+1.69
달러/유로	1.11	-0.47	-0.45
위안/달러	7.05	+0.00	-0.99
엔/달러	143.62	-0.17	-0.64
Dollar Index	100.94	+0.21	+0.06

상품시장 동향	종가	D-1(%)	D-20(%)
WTI (usd/barrel)	70.37	-0.89	-9.11
금 (usd/oz)	2,652.50	+0.24	+3.81
BDI	1,977.00	+0.05	+12.20
천연가스(NYMEX)	2.61	7.35	+33.59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Industry Note
2024. 09. 24

2차전지 산업

OVERWEIGHT

8월 미국 전기차 판매 +20%(YoY) 성장 및 Ultium 판매량 급증

Analyst 강동진
02-3787-2228
dongjin.kang@hmsec.com

RA 김성훈
02-3787-2113
1600535@hmsec.com

주요 이슈와 결론

- 8월 미국 전기차 판매 +20%(YoY). 전월비 급성장
- Tesla 전기차 판매 회복. Cyber Truck 판매 증대 및 신차효과 기대
- GM / Honda 합산 Ultium Platform 전기차 판매 2만대 초과
- 주요 OEM들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Tesla 판매량 증대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미국 전기차 판매 호조 지속 전망
- 독일 전기차 보조금 재시행 및 배출량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는 최악을 지날 전망

산업 및 해당기업 주가

- 미국, 유럽 전기차 수요 비관론 점진적 완화 전망
- Top picks: 삼성SDI, LG화학, 관심종목: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Tesla 전기차 판매 회복. 8월 미국 전기차 판매량 +20.3%(YoY) 성장

EV-Volumes에 따르면 미국 8월 전기차 판매량이 +20.3%(YoY)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월비 역시 19.1% 성장하여 월간기준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7월 누적 성장률이 +8.4%(YTD)에 그쳤고, 전년대비 성장률이 +3.5%(YoY)였음을 감안하면, 8월 판매량 강세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Tesla, GM, Ford, Kia, Honda, Nissan 등이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GM의 미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12,000대를 상회하여 전년 동기비 +74%(YoY) 성장하여, OEM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전년비 역성장을 해오던 Tesla는 Cyber Truck 판매 증대 및 Model3 신차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비 +10.8%(YoY) 성장하였다. Tesla 판매 증대는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Tesla는 미국 전기차 시장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7월 누적 전년비 -10.3%(YTD) 역성장하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7월까지 Tesla를 제외한 기업들의 미국 전기차 판매는 +25.0%(YTD) 성장하며 양호했다.

향후 Tesla의 미국 판매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신차효과 때문이다. Tesla는 최근 4680배터리 양산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파나소닉, LG에너지솔루션이 4Q24부터 4680배터리를 양산하고 공급함에 따라 Cyber Truck 인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가격이 크게 낮아진 Model3 LR RWD 모델 인도 증대 및 '25년초부터 ModelY FL 모델이 출시되기 때문에 신차효과가 지속된다. 이러한 Tesla 판매 증대는 미국 전기차 시장 경쟁을 심화시킬 전망이며, 시장 전체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OEM들은 배터리 가격 효과가 체감되는 3Q24부터 적극적인 인센티브 전략을 통해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고 있어 판매 호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표1> 주요 OEM 미국 전기차 8월 판매량 추정 및 Tesla 제외 판매량 추정

(단위: 대, %)	2024.08	2023.08	YoY
Tesla Inc.	54,800	49,450	10.8%
Hyundai Motor	14,475	13,843	4.6%
GM	12,187	7,006	74.0%
Stellantis	10,250	12,097	-15.3%
Ford	8,888	6,926	28.3%
Toyota Motor Corp.	7,997	5,405	48.0%
VW Group	6,416	6,887	-6.8%
BMW Group	4,833	6,337	-23.7%
Mercedes-Benz Group	4,057	3,649	11.2%
Rivian Automotive	4,033	4,200	-4.0%
미국 전기차 판매량	**148,879**	**123,784**	**20.3%**
(테슬라 제외)미국 전기차 판매량	**94,079**	**74,334**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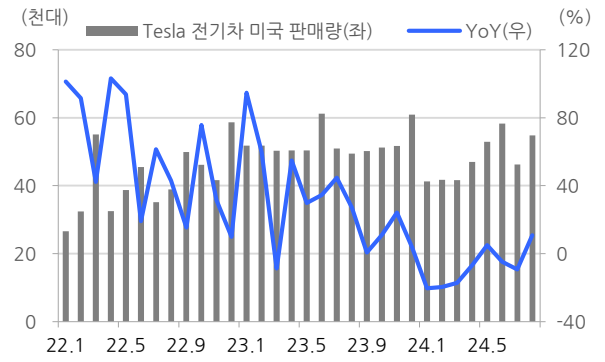
자료 : EV-Volumes, 현대차증권

<표2> 주요 OEM 미국 전기차 8월 누적 판매량 추정 및 Tesla 제외 판매량 추정

(단위: 대, %)	2024.01~08 YTD	2023.01~08 YTD	YTD
Tesla Inc.	383,756	416,133	-7.8%
Stellantis	104,422	74,217	40.7%
Hyundai Motor	98,273	76,089	29.2%
Ford	59,821	41,342	44.7%
GM	58,822	49,128	19.7%
Toyota Motor Corp.	54,698	31,122	75.8%
BMW Group	42,514	47,110	-9.8%
VW Group	39,014	46,419	-16.0%
Mercedes-Benz Group	31,361	26,252	19.5%
Rivian Automotive	28,598	25,986	10.1%
미국 전기차 판매량	**997,048**	**905,979**	**10.1%**
(테슬라 제외)미국 전기차 판매량	**613,292**	**489,846**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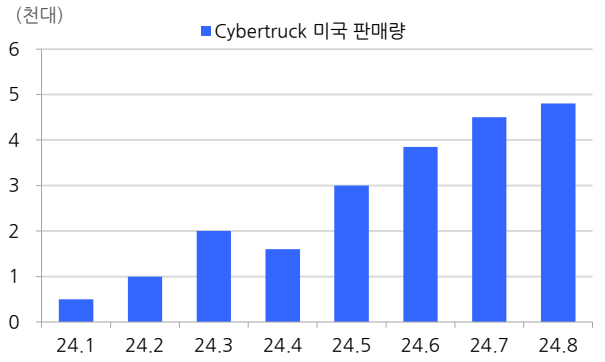
자료 : EV-Volumes, 현대차증권

<그림1> Tesla 미국 전기차 판매량 및 전년비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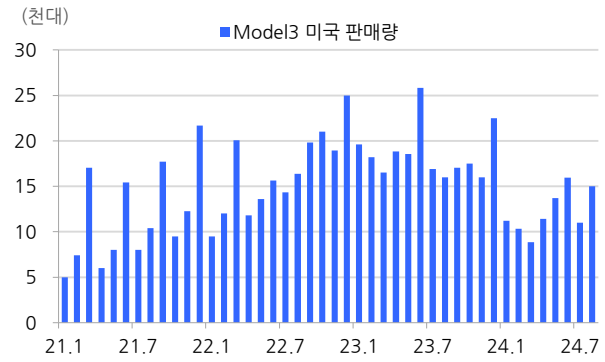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현대차증권

<그림2> Tesla CyberTruck 미국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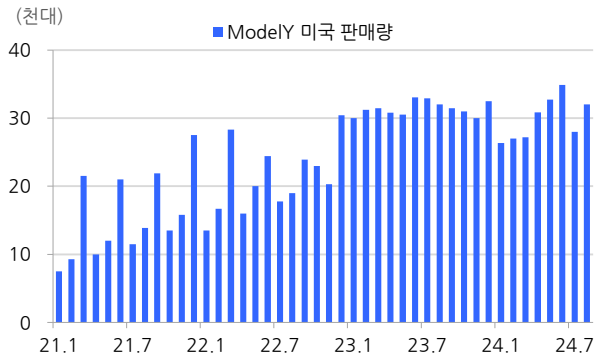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현대차증권

<그림3> Tesla Model3 미국 판매량 추이



자료: EV-Volumes, 현대차증권

<그림4> Tesla ModelY 미국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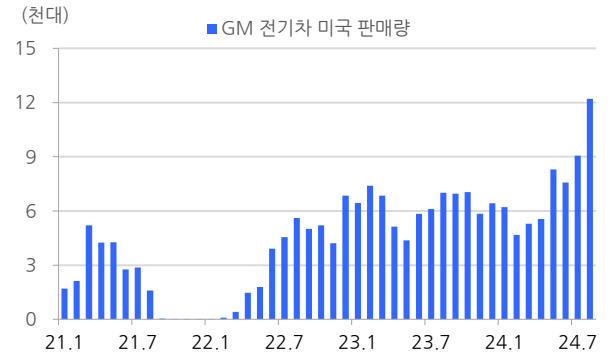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현대차증권

GM, Honda 전기차 판매 대폭 증가. LG에너지솔루션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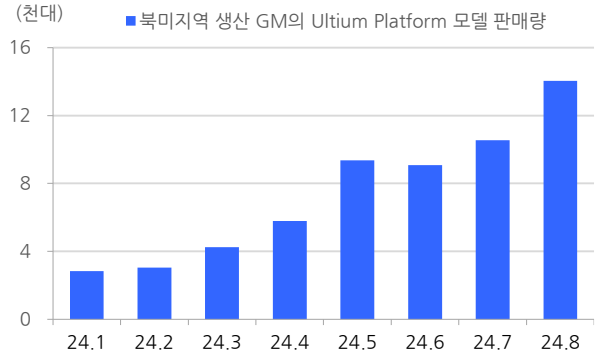
Honda는 GM의 Ultium Platform을 사용하여 전기차를 제조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GM 합작 공장에서 배터리를 공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양사에 대한 배터리 판매에 비례하여 AMPC를 수취한다. LG에너지솔루션 가이던스인 AMPC 30~35GWh 수취는 GM의 전기차 판매뿐만 아니라, Honda의 전기차 판매 역시 고려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GM의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 20만대/년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크지만, 이는 Honda 판매량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GM 판매량만을 고려할 경우 AMPC 수취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1~8월까지 GM/Honda 전기차 판매는 71,500대를 기록하였고, 8월에만 2만대 이상을 판매했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등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호조가 지속된다면, 2024년 Ultium Platform 전기차 판매량은 20만대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재고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충분히 LG에너지솔루션의 가이던스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림5> GM 전기차 미국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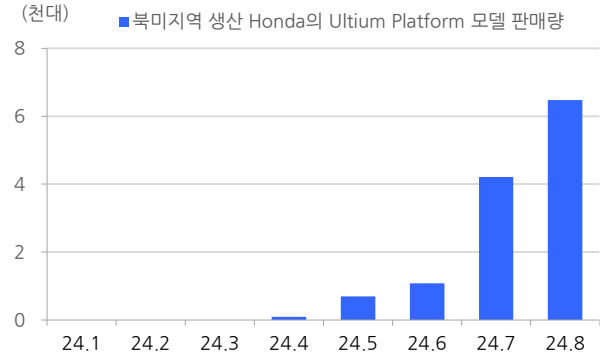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현대차증권

<그림6> GM Ultium Platform 전기차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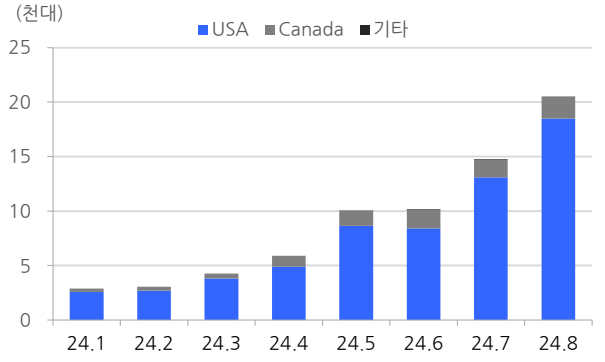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현대차증권

<그림7> Honda Ultium Platform 전기차 판매량 추이



자료: EV-Volumes, 현대차증권

<그림8> GM, Honda Ultium Platform 국가별 전기차 판매



자료: EV-Volumes, 현대차증권

독일 전기차 보조금 시행. 유럽 역시 점진적으로 최악을 지날 전망

독일은 작년말 폐지했던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시작할 예정으로 내연기관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6,000유로, 중고차 구매 시 3,000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25년부터 연비규제가 강화된다. 물론, ACEA는 연비규제 강화를 약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VW 등은 전기차 판매가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올해 대비 '25년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지 않으면 안될 수준이다. 나아가 현대/기아차 등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더욱 개선된 Casper EV, EV3 등 보급형 전기차 모델들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판단한다.

유럽, 미국 등 한국 업체들에게 중요한 시장의 전반적인 전기차 판매가 저점을 지나고 있어 수요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op picks은 삼성SDI, LG화학, 관심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을 추천한다.

전기/전자 업종

Overweight

Analyst 김종배
02) 3787-2074
kjb6551@hmsec.com

Apple Intelligence가 불러올 on-device cycle (요약)

IT 시장 summary: 불안한 현재, 불확실한 미래

COVID로 인한 Lifestyle 변화로 IT 수요가 급증했던 2020-21년 이후 IT 수요는 지난 2년간 역성장하였음. 올해 상반기도 Smartphone을 제외한 다른 IT Device 내에서는 반등의 Signal이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 하반기 AI 제품 출시와 더불어 PC 교체 주기를 기대하며 반등을 기대하였지만 현재로서는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 아직까지는 AI on-device의 출시와 개선되는 Macro 상황이 IT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남아있는 상황. 다만, 그 시점에 대해 아직까지는 불분명함

AI on-device 개화는 PC 보다 Mobile. 결국에는 Apple 이 Key Player 가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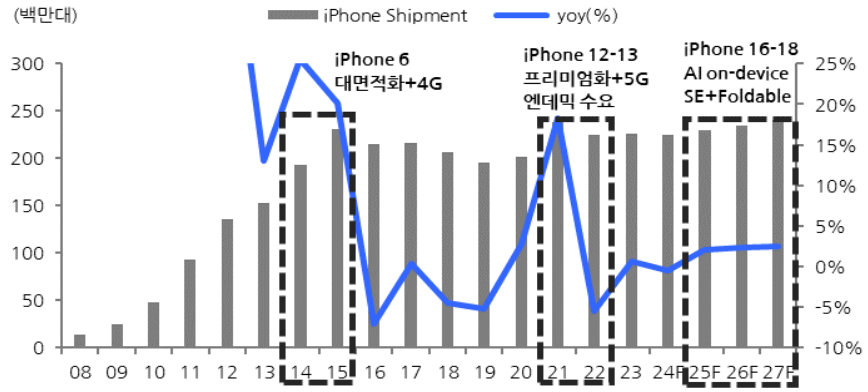
올해 상반기 Galaxy S24 Series, 중국 Smartphone에서 다양한 AI 기능을 강조한 Smartphone이 출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전 기능에 비해 혁신적인 Upgrade는 부재하다고 판단됨. AI PC 역시 Chipset의 Upgrade를 강조하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AI PC에 대한 교체 동력이 부재하다고 보여짐

단순히 Network를 연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보다는 AI 연산능력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on-device는 새롭게 정의될 것. WWDC 이후, 9월 제품 출시에서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가장 먼저 다가가는 IT 세트업체는 Apple이라고 판단됨. Apple Intelligence에 대한 시장 반응은 WWDC 이후의 주가 흐름과 9월 언팩 행사를 보면 뚜렷하게 보여짐. AI 기능 도입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iPhone 16 Series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Apple AI 기능의 혁신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한다고 보여짐. 결국에 On-device의 선구자는 Apple이 될 것이고, 이를 기점으로 On-device는 개화될 것

Valuation 매력은 모두 있지만, 그 중 가깝고 확실한 모멘텀을 찾는 것이 중요

IT 전체 수요에 대한 당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다만, 올해부터 시작되는 IT 시장 내에서의 AI 모멘텀은 분명히 유효한 구간. 전장으로 인한 모멘텀은 AI 이후의 시점이 될 것. 국내 IT H/W 대형주 중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모두 AI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Valuation은 각각 P/B 기준 0.95배, 1.22배, 0.98배 수준으로 역사적인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 이 중 당장의 북미 세트업체의 Super-cycle 모멘텀을 갖고 있는 LG이노텍을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AI에 따른 MLCC 출하 확대가 기대되는 삼성전기, B2B 비즈니스로 성장세가 기대되는 LG전자를 차선호주로 제시

iPhone 교체 cycle: AI on-device로 인한 가늘고 긴 cycle의 시작



자료: Counterpoint, 현대차증권

Credit
2024.09.20

Credit Plus

빅 컷으로 안정된 시장, 부동산 PF 저축은행 신용등급 하향 압력 증가

Credit 이화진
02-3787-2343
hlee@hmsec.com

발행시장– 8월 중순 이후 회사채 발행 재개

- 발행기업 신용등급 조정이 있었음. KIS는 9월 10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A로 상향함. 현대자동차는 NICE가 4월 2일 AAA로 상향조정 했고, KR은 4월 19일 AA+로 유지하면서 적용 등급은 AA+ 임. 기아는 NICE와 KR에서 AA+ 긍정적 등급을 받고 있음.

전력 수요 확대로 관련 기업들의 신용등급과 전망 상향 조정도 이어졌음. HD현대일렉트릭은 A-에서 A0로 등급이 상향됐고(KIS), LS일렉트릭(AA-)와 대한 전선(A-)은 등급 전망이 상향됨.

- 회사채 발행은 8월 중순 이후 발행이 증가했고, 9월 본격적으로 발행이 시작됨. 8월/9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각각 2조원/5.7조원 수준으로 전년동기 1.4조원/4.7조원 대비 증가함.

- 발행 금리는 전월대비 국고채 3년 기준 -10.8bp가 하락했고, AA-등급 회사채 스프레드는 +6.5bp, A+등급은 +2.4bp 상승함. 금리 하락과 스프레드 추가 축소 여력 소진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되었고, 상대적으로 추가 축소 여력이 있는 A등급의 스프레드 확대 폭이 적었음.

- 수요예측 낙찰 금리에서도 A등급이 AA등급 대비 강하게 낙찰됨. 기업별 업종별 차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펀더멘탈이 우수하고 업황이 양호한 기업들의 발행 강세가 뚜렷했음.

삼양패키징(A-)는 2년/3년 -22 bp /-36bp, 하이트진로홀딩스(A0)는 2년/3년 -25 bp /-33bp, 우리금융에프앤아이(A-)는 1.5 년/2 년/3년 -17 bp /-21 bp /-45bp로 낙찰. 수요는 5~14배 모집됨.

- AA등급은 A등급 대비 금리 매리트가 감소하면서 낙찰금리 수준은 -4 bp ~-14bp 수준이었으나, 수요는 발행 예정 금액의 5~10배 이상 모집됨. 현대트랜시스(AA-)는 2년/3년 /5년 각 -5 bp /-5 bp /-11bp, 현대제철(AA0)3년 /5년 /7년 각 -4 bp /-5 bp /-14bp 이었음.

크레딧 전망–빅 컷으로 안정된 시장, 부동산 PF 저축은행 신용등급 하향 압력 증가

- 19일 FOMC에서 50bp인하 '빅 컷'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5.25~5.5%에서 4.75~5.0%이 됨. 22년 3월 25bp 인상을 시작으로 23년 7월까지 11번 인상(0%→5.5%) 후 2년 반만의 인하임.

성장률 전망은 하향(2.1→2.0%), 실업률 전망 상향(4.0→4.4%), 인플레이션 전망 하향 PCE(2.6→2.3%), Core PCE(2.8→2.6%)제시함.

7월 FOMC 금리 동결 직후 발표된 경제지표(실업률 4.3%2년 9개월 만에 최고치)에 대한 고려도 언급됨. BOJ는 8월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 '블랙먼데이' 대폭락을 초래. 금일은 금리를 동결함.

-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 다음날 주식과 채권 모두 강세를 나타냄. 미국 국채금리는 2년/10년 3.58%/3.71%까지 하락함. 국내 금리는 3년/10년 2.836%/2.989%로 약보합세를 나타냄. 크레딧 채권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냄. 차주 美금리인하와 발행재개로 스프레드는 강보합을 전망함. 경기 연착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안정을 찾았지만,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美대선, BOJ긴축과 엔캐리청산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 상존함. 국내는 저축은행 손실 확대와 등급 하향 압력 증가로 연말까지 신용경계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표 1> 주간 금리 및 스프레드 변동 (9/19일 기준)

구분	금리(%)					크레딧 스프레드(bp)					전주 대비 스프레드 변동(bp)					전월 대비 스프레드 변동(bp)				
	1Y	3Y	5Y	7Y	10Y	1Y	3Y	5Y	7Y	10Y	1Y	3Y	5Y	7Y	10Y	1Y	3Y	5Y	7Y	10Y
국고채	2.88	2.84	2.85	2.97	2.97	-	-	-	-	-	-2.5	-3.3	-4.1	-2.5	-0.1	-17.5	-10.8	-10.6	-4.4	-3.1
특수채 AAA	3.22	3.11	3.12	3.14	3.16	34.3	27.4	26.6	17.3	19.0	1.3	0.3	0.6	0.5	0.0	13.2	4.1	5.1	1.0	0.7
은행채 AAA	3.24	3.14	3.17	3.33	3.56	36.3	30.1	31.9	36.3	59.2	0.5	0.2	0.2	0.1	-0.2	9.3	1.5	4.3	-0.5	-0.6
여전채 AA+	3.32	3.29	3.30	3.70	4.31	44.3	45.2	44.7	73.9	134.5	-0.6	-1.0	-0.6	0.0	0.0	8.6	0.5	4.0	-1.5	-0.2
여전채 AA-	3.45	3.47	3.62	4.12	4.71	56.5	63.0	76.7	115.0	174.4	-0.6	-1.3	-0.6	0.1	0.0	10.5	-0.2	3.2	-0.5	0.0
여전채 A+	4.20	4.41	4.76	5.00	5.41	131.5	157.0	190.3	203.8	243.7	-0.7	-1.0	-0.5	0.0	0.0	-2.2	-7.9	1.0	0.0	0.2
회사채 AAA	3.25	3.27	3.28	3.34	3.59	37.4	43.6	42.4	37.3	61.8	1.2	0.9	0.7	0.3	0.0	11.9	6.4	6.0	-0.5	-1.8
회사채 AA+	3.28	3.34	3.35	3.46	3.87	39.7	50.0	49.7	49.2	89.8	1.1	0.3	0.4	0.0	-0.2	12.2	6.4	5.4	-1.8	-2.2
회사채 AA0	3.30	3.37	3.42	3.56	4.21	42.0	53.6	56.1	59.2	123.9	1.4	0.2	0.3	0.0	-0.1	12.4	6.3	5.4	-1.8	-2.8
회사채 AA-	3.33	3.42	3.52	3.76	4.57	44.9	58.4	66.5	79.0	159.7	1.3	0.4	0.3	0.1	-0.2	12.4	6.5	5.4	-1.7	-2.9
회사채 A+	3.53	3.76	4.24	4.47	5.14	64.9	92.2	138.3	150.4	216.7	1.4	0.5	0.2	0.2	0.0	10.7	2.4	2.0	-1.8	-1.6
회사채 A0	3.70	4.02	4.66	4.91	5.60	82.2	118.1	180.6	194.4	262.6	1.2	0.5	0.1	0.2	0.0	10.3	2.1	2.5	-1.1	-1.0
회사채 A-	3.97	4.45	5.24	5.43	6.11	108.6	161.8	238.9	246.6	313.7	1.1	0.5	0.2	0.2	0.0	10.3	1.1	1.2	-2.4	-1.0
회사채 BBB+	5.22	6.87	7.20	7.31	7.66	233.9	403.0	434.9	434.4	469.4	0.2	0.1	0.0	0.1	-0.1	0.6	-2.4	0.8	-2.7	-1.6

주: 민평3사 기준, 전월대비 스프레드 변동 중 국고채는 금리 변동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표 2> 신용등급 변경 (7/19 - 9/19)

회사명	변경일	평가기관	직전등급	변경등급	등급변동	적용등급	구분	비고
포천파워	2024-07-19	KIS	A0	A+	상향	A+	상향	- 우호적인 전력수급 여건 하에서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 - 영업창출현금을 바탕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부담 축소 기조
S-OIL㈜	2024-08-21	KR	AA0	AA+	상향	AA0	유지	- 최대주주 아람코 사업연계. 샤힌프로젝트완공 후 원가경쟁력 강화 예상 - 양호한 수급 하에 견조한 영업현금흐름 창출 전망
SK 렌터카	2024-08-22	3 사	A+	A0	하향	A0	하향	- 최대주주 변경으로 계열지원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된 점을 반영
에이치디 현대일렉트릭	2024-08-27	KIS	A-	A0	상향	A0	유지	- 전력기기 수요 확대세 지속 전망 및 이로 인한 수익성 개선 추세 - 확대된 영업현금창출력으로 자금소요에 대응가능할 것으로 전망
현대자동차	2024-09-10	KIS	AA+	AAA	상향	AA+	유지	- 글로벌 완성차 시장 내 입지가 강화되며 이익 창출력 상승 - 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에도 우수한 재무구조
기아	2024-09-10	KIS	AA+	AAA	상향	AA+	유지	- 강화된 시장지위를 기반으로 이익 창출력 상승 - 현금흐름 선순환 구조에 기반한 재무구조 개선 전망
현대카드	2024-09-11	KIS	AA0	AA+	상향	AA0	유지	- 현대자동차의 신용등급 상승에 따라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 반영 - 신용카드산업 내 우수한 시장지위
웰컴저축은행㈜	2024-09-13	KR	BBB+	BBB0	하향	BBB0	하향	- PF 관련 여신 부실위험 확대로 자산건전성 저하 - PF 리스크로 실적 하방압력 지속될 전망

자료: 신평사, 현대차증권 주:포천파워는 채권등급 소멸

〈표 3〉 신용등급 전망 변경 (7/19 - 9/19)

회사명	변경일	기관명	직전등급 /아웃룩	변경등급 /아웃룩	구분	적용등급	비고
대한전선	2024-07-24	KR	A-/S	A-/P	전망상향	A-	- 전력 인프라 투자 기조 확대로 이익창출력 개선 전망 - 유상증자로 재무완충력을 확보
에이비엘생명보험(후)	2024-08-29	KR, KIS	A/S	A/↑	전망상향	A0	- 우리금융지주로의 대주주 변경 시 계열 지원가능성 반영 가능
케이비저축은행	2024-09-05	KIS	A/S	A/N	전망하향	A0	- 부동산 PF 건전성 저하로 대손부담 증가 - 23 년 대규모 적자로 자본완충력 하락
예가람저축은행	2024-09-10	NICE	BBB+/S	BBB+/N	전망하향	BBB+	- 대손비용이 증가하면서 당기순손실 발생, 수익성 저하 -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자산건전성 저하
엘에스일렉트릭	2024-09-12	NICE	AA-/S	AA-/P	전망상향	AA-	- 북미 전력인프라 매출비중 확대로 전사 영업수익성이 개선 - 안정적인 현금창출능력과 우수한 차입금 상환능력
비엔케이저축은행	2024-09-13	KIS	A/S	A/N	전망하향	A0	- 부동산 PF 및 가계신용대출에서의 대손부담으로 수익성 저하 - 연체율 상승 지속으로 자산건전성 저하

자료: 신평사, 현대차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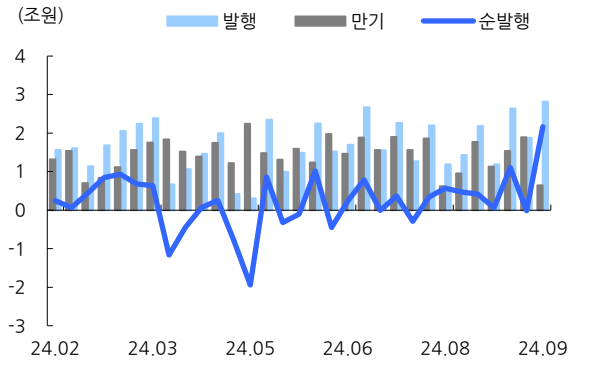
〈표 4〉 수요예측

발행종목	수요 예측일	발행일	신용 등급	예측 금액 (억원)	발행 금액 (억원)	만기 (년)	금리밴드(bp, %)			낙찰 (bp, %)	유효 수요 (억원)	유효 경쟁률 (배)	발행목적	개별민평 (%)
							기준	하단	상단					
메리츠화재해상보험(후)	2024-08-19	2024-08-28	AA0	4,000	6,500	10.0	절대금리	3.90%	4.50%	4.50%	5,930	1.48	운영자금	-
한국토지신탁	2024-08-20	2024-08-28	A-	300	210	2.0	개별민평	-50	50	50	210	0.70	차환자금, 운영자금	310.40%
한국토지신탁	2024-08-20	2024-08-28	A-	300	390	3.0	개별민평	-50	50	10	600	2.00	차환자금, 운영자금	330.60%
SBS	2024-08-21	2024-08-29	AA0	400	400	2.0	개별민평	-30	30	6	1,300	3.25	차환자금	49.80%
SBS	2024-08-21	2024-08-29	AA0	600	700	3.0	개별민평	-30	30	12	1,200	2.00	차환자금	57.50%
SK	2024-08-21	2024-08-29	AA+	500	500	2.0	개별민평	-30	30	0	2,200	4.40	차환자금	39.90%
SK	2024-08-21	2024-08-29	AA+	1,000	2,900	3.0	개별민평	-30	30	9	4,800	4.80	차환자금	45.70%
SK	2024-08-21	2024-08-29	AA+	700	800	5.0	개별민평	-30	30	7	3,100	4.43	차환자금	41.70%
SK	2024-08-21	2024-08-29	AA+	300	300	7.0	개별민평	-30	30	-1	1,600	5.33	차환자금	34.60%
한화손해보험(후)	2024-08-22	2024-08-29	AA-	2,000	3,500	10.0	절대금리	4.30%	4.80%	4.78%	4,520	2.26	운영자금	-
케이디비생명보험(후)	2024-08-22	2024-08-30	A+	2,000	2,000	10.0	절대금리	5.40%	6.00%	5.82%	3,030	1.52	운영자금	-
S-Oil	2024-08-26	2024-09-03	AA0	1,000	1,500	5.0	개별민평	-30	30	-3	5,300	5.30	차환자금	41.40%
S-Oil	2024-08-26	2024-09-03	AA0	400	400	7.0	개별민평	-30	30	-4	900	2.25	차환자금	34.50%
S-Oil	2024-08-26	2024-09-03	AA0	600	1,100	10.0	개별민평	-30	30	-16	1,700	2.83	차환자금	64.70%
KB증권	2024-08-26	2024-09-03	AA+	1,500	2,200	2.0	개별민평	-30	30	10	2,900	1.93	차환자금	50.40%
KB증권	2024-08-26	2024-09-03	AA+	1,500	2,800	3.0	개별민평	-30	30	6	5,500	3.67	차환자금	55.20%
한솔테크닉스	2024-08-27	2024-09-03	BBB+	150	280	1.5	개별민평	-30	30	-7	580	3.87	차환자금	100.60%
한솔테크닉스	2024-08-27	2024-09-03	BBB+	150	170	2.0	개별민평	-30	30	-29	690	4.60	차환자금	127.00%
HL홀딩스	2024-08-27	2024-09-04	A0	400	680	1.5	개별민평	-30	30	-17	6,130	15.33	차환자금, 운영자금	85.00%
HL홀딩스	2024-08-27	2024-09-04	A0	400	520	2.0	개별민평	-30	30	-24	3,290	8.23	차환자금, 운영자금	96.10%
키움증권	2024-08-28	2024-09-04	AA-	700	1,400	2.0	개별민평	-30	30	9	4,450	6.36	차환자금	62.30%
키움증권	2024-08-28	2024-09-04	AA-	800	1,600	3.0	개별민평	-30	30	5	7,050	8.81	차환자금	69.50%
동원산업	2024-08-28	2024-09-05	AA-	700	700	3.0	개별민평	-30	30	-4	2,600	3.71	차환자금	53.30%
삼양패키징	2024-08-29	2024-09-06	A-	540	600	2.0	개별민평	-30	30	-22	2,850	5.28	차환자금	84.40%
삼양패키징	2024-08-29	2024-09-06	A-	400	600	3.0	개별민평	-30	30	-36	2,010	5.03	차환자금	98.20%
종근당	2024-08-29	2024-09-06	AA-	400	400	2.0	개별민평	-30	30	-3	2,250	5.63	차환자금	57.50%
종근당	2024-08-29	2024-09-06	AA-	400	400	3.0	개별민평	-30	30	-13	4,050	10.13	차환자금	64.40%

발행종목	수요 예측일	발행일	신용 등급	예측 금액 (억원)	발행 금액 (억원)	만기 (년)	금리밴드(bp,%)			낙찰 (bp,%)	유효 수요 (억원)	유효 경쟁률 (배)	발행목적	개별민평 (%)
							기준	하단	상단					
에스케이어드밴스드	2024-09-02	2024-09-09	A-	250	260	1.5	절대금리	5.00%	6.80%	6.38%	440	1.76	차환자금	226.80%
에스케이어드밴스드	2024-09-02	2024-09-09	A-	250	740	2.0	절대금리	5.20%	7.00%	6.19%	1,300	5.20	차환자금	240.20%
JB금융지주(신종)	2024-09-02	2024-09-10	A+	1,000	1,400	5.0	절대금리	3.85%	4.65%	4.65%	1,330	1.33	자본 적정성 제고	-
한화	2024-09-02	2024-09-10	A+	600	1,280	2.0	개별민평	-30	30	-3	6,970	11.62	차환자금	65.50%
한화	2024-09-02	2024-09-10	A+	900	1,160	3.0	개별민평	-30	30	-1	6,060	6.73	차환자금	79.50%
삼성물산	2024-09-03	2024-09-10	AA+	1,500	3,300	2.0	개별민평	-30	30	-4	9,300	6.20	차환자금	43.40%
삼성물산	2024-09-03	2024-09-10	AA+	1,500	1,700	3.0	개별민평	-30	30	-6	13,000	8.70	차환자금	48.50%
두산에너빌리티	2024-09-03	2024-09-11	BBB+	300	630	2.0	개별민평	-30	30	0	1,130	3.77	차환자금	119.40%
두산에너빌리티	2024-09-03	2024-09-11	BBB+	500	870	3.0	개별민평	-30	30	-38	3,610	7.22	차환자금	198.50%
신한지주(신종)	2024-09-04	2024-09-12	AA-	2,700	4,000	5.0	절대금리	3.30%	4.00%	4.00%	4,680	1.73	운영자금,차환자금	-
지에스이피에스	2024-09-04	2024-09-12	AA0	1,000	1,000	3.0	개별민평	-30	30	-5	5700	5.70	운영자금, 차환자금	45.30%
지에스이피에스	2024-09-04	2024-09-12	AA0	500	500	5.0	개별민평	-30	30	-6	3200	6.40	운영자금	44.40%
포스코인터내셔널	2024-09-04	2024-09-12	AA-	700	800	2.0	개별민평	-30	30	-5	2900	4.14	차환자금	45.20%
포스코인터내셔널	2024-09-04	2024-09-12	AA-	1,000	1,900	3.0	개별민평	-30	30	-9	8500	8.50	차환자금	49.40%
포스코인터내셔널	2024-09-04	2024-09-12	AA-	300	300	5.0	개별민평	-30	30	-11	2300	7.67	차환자금	56.30%
하이트진로홀딩스	2024-09-04	2024-09-12	A0	300	580	2.0	등급민평	-30	30	-25	3940	13.13	차환자금	91.20%
하이트진로홀딩스	2024-09-04	2024-09-12	A0	600	840	3.0	등급민평	-30	30	-33	5280	8.80	차환자금	114.70%
현대트랜시스	2024-09-04	2024-09-12	AA-	400	500	2.0	개별민평	-30	30	-5	1700	4.25	차환자금	46.60%
현대트랜시스	2024-09-04	2024-09-12	AA-	1,200	1,700	3.0	개별민평	-30	30	-5	7700	6.42	운영자금, 차환자금	50.50%
현대트랜시스	2024-09-04	2024-09-12	AA-	400	800	5.0	개별민평	-30	30	-11	4000	10.00	운영자금, 차환자금	56.10%
하나증권(후)	2024-09-05	2024-09-05	AA-	1,500	2,500	6.0	절대금리	4.90%	4.90%	4.90%	-	-	차환자금	-
삼성증권	2024-09-05	2024-09-12	AA+	2,000	2,600	3.0	개별민평	-30	30	-11	13,700	6.85	차환자금	59.30%
삼성증권	2024-09-05	2024-09-12	AA+	1,000	2,400	5.0	개별민평	-30	30	-10	9,200	9.20	차환자금	62.10%
우리금융에프앤아이	2024-09-05	2024-09-12	A-	500	960	1.5	개별민평	-30	30	-17	4120	8.24	운영자금	88.70%
우리금융에프앤아이	2024-09-05	2024-09-12	A-	700	1,420	2.0	개별민평	-30	30	-21	5670	8.10	운영자금, 차환자금	100.00%
우리금융에프앤아이	2024-09-05	2024-09-12	A-	300	320	3.0	개별민평	-30	30	-45	4280	14.27	차환자금	124.40%
현대제철	2024-09-05	2024-09-12	AA0	1,000	2,000	3.0	개별민평	-30	30	-4	8900	8.90	차환자금	43.50%
현대제철	2024-09-05	2024-09-12	AA0	700	700	5.0	개별민평	-30	30	-5	4200	6.00	차환자금	42.10%
현대제철	2024-09-05	2024-09-12	AA0	300	300	7.0	개별민평	-30	30	-14	2500	8.33	차환자금	43.10%
삼척블루파워	2024-09-05	2024-09-13	A+	1,500	1,500	3.0	개별민평	-30	30	30	1393	0.93	차환자금	326.40%
메리츠금융지주	2024-09-11	2024-09-24	AA0	1,300	1,990	1.0	개별민평	-50	10	-6	6,600	5.08	차환자금,기타자금	69.30%
메리츠금융지주	2024-09-11	2024-09-24	AA0	700	1,000	3.0	개별민평	-50	10	-28	7,120	10.17	차환자금,기타자금	88.60%
한화생명(신종)	2024-09-11	2024-09-24	AA-	3,000	6,000	30.0	절대금리	4.30%	4.80%	4.80%	5,280	1.76	운영자금	-
농협금융지주(신종)	2024-09-11	2024-09-25	AA-	2,000	2,000	5.0	절대금리	3.30%	4.00%	3.95%	2,760	1.38	차환자금	-
흥국화재(후)	2024-09-12	2024-09-26	A0	2,000		10.0	절대금리	5.90%	6.30%				운영자금	-
에이비엘생명보험(후)	2024-09-20	2024-09-30	A0	2,000		10.0	절대금리	5.40%	6.00%				운영자금	-
롯데칠성음료	2024-09-23	2024-10-02	AA0	700		3.0	개별민평	-30	30				차환자금	49.80%
메리츠증권(신종)	2024-09-25	2024-09-25	A0	1,500		30.0	절대금리	5.80%	5.80%				운영자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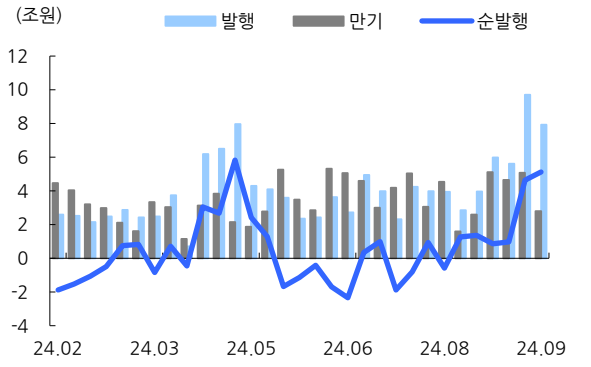
자료: 다트공시, 현대차증권

<그림 1> 공사채 발행, 만기,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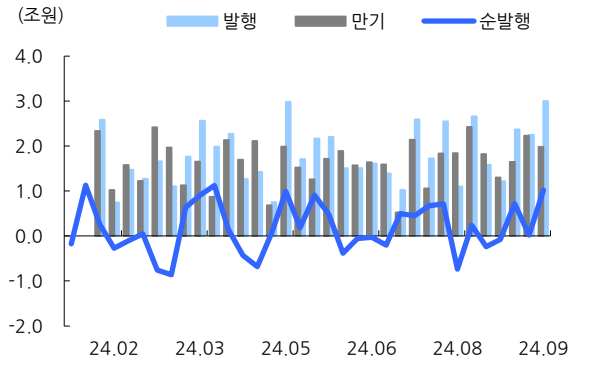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주:직전 주말까지 주간단위 순발행

<그림 2> 은행채 발행, 만기,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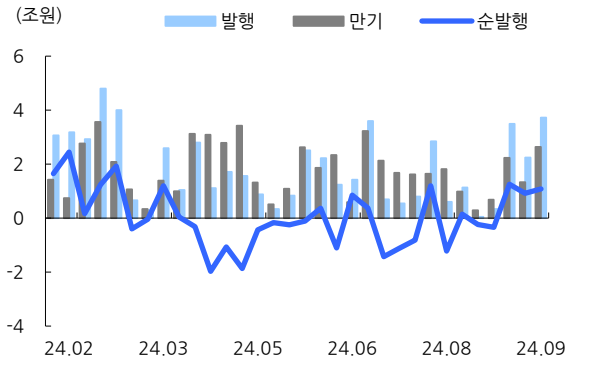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3> 여전채 발행, 만기,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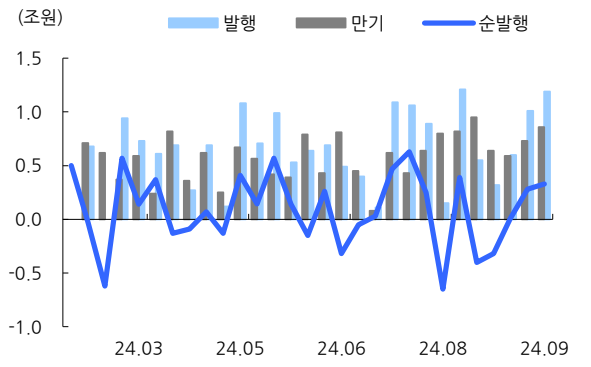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4> 회사채 발행, 만기,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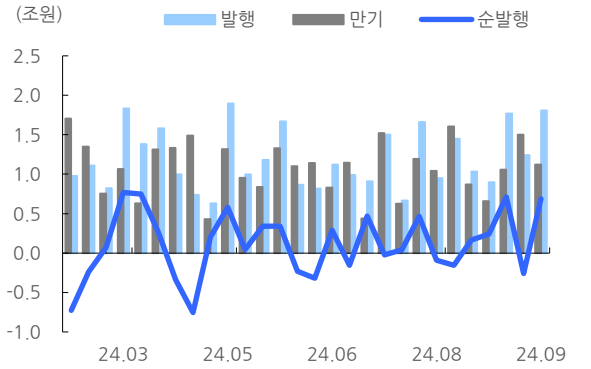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5> 카드 발행, 만기,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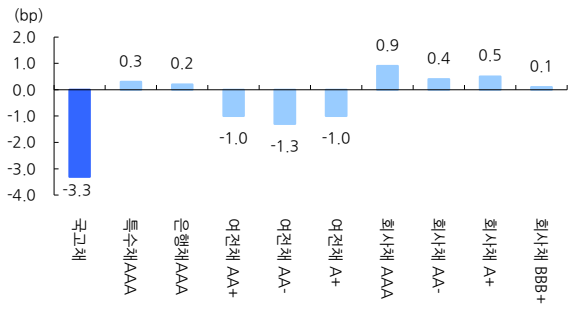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6> 캐피탈 발행, 만기, 순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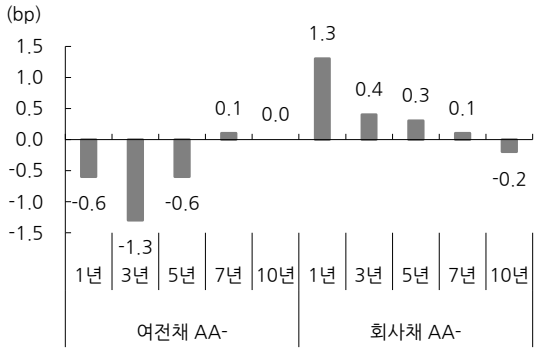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7> 전주대비스프레드 변동(3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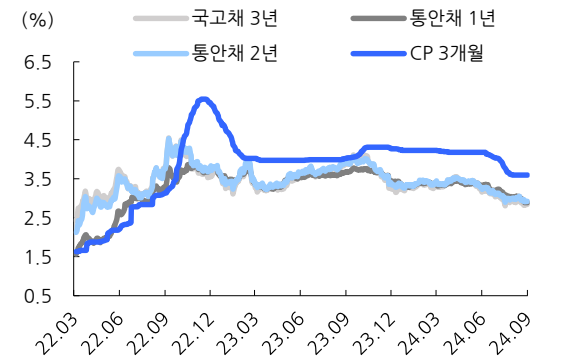
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8> 전주대비 여전채, 회사채 스프레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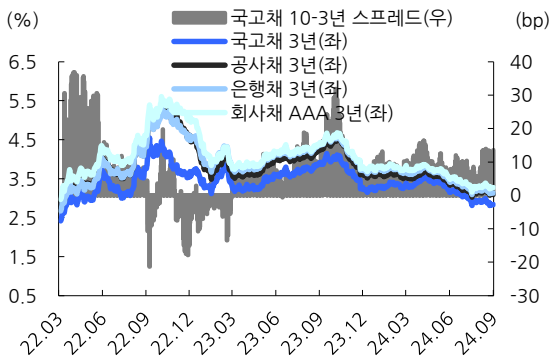
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9> 국고채3, 통안채 1,2년, CP 3개월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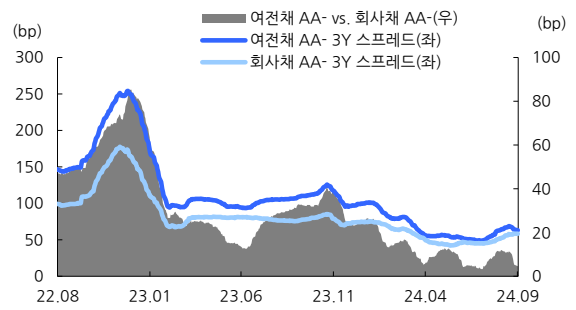
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10> 국고채, 공사채, 은행채, 회사채 AAA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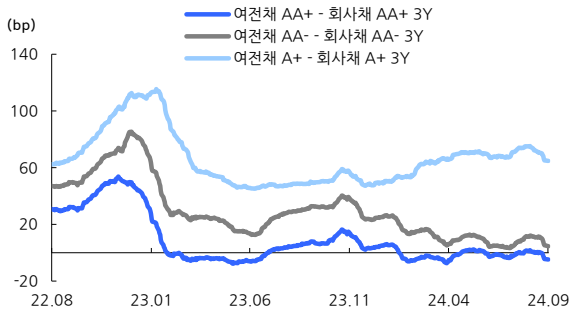
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11> 여전채 AA- vs. 회사채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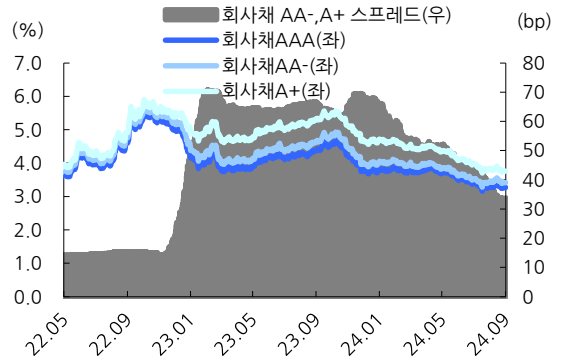
주: 3년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12> 여전채 vs. 회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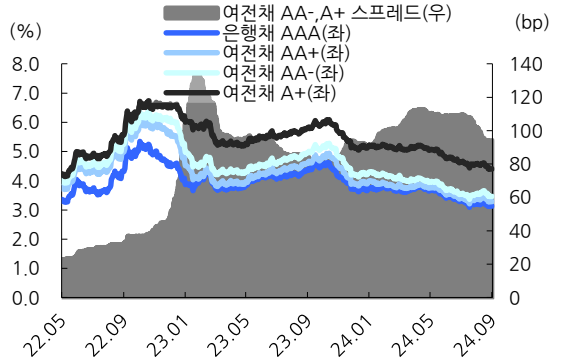
주: 3년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13> 회사채 AAA, AA-, A+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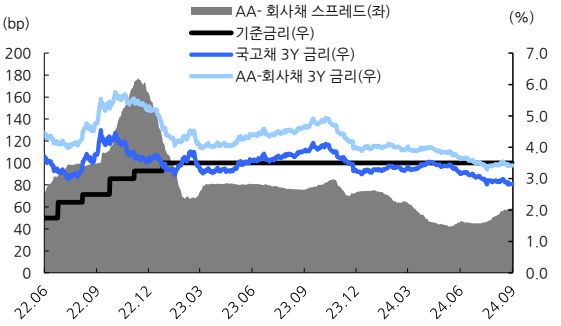
주: 3년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14> 은행채 AAA, 여전채 AA+, AA-, A+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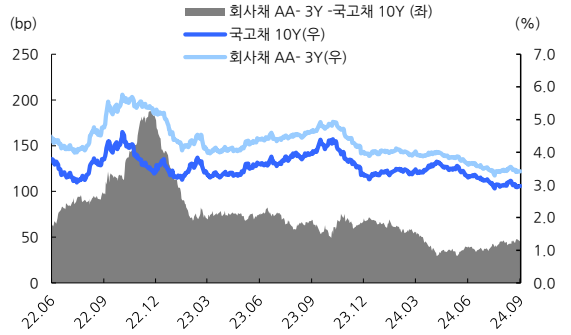
주: 3년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15> 회사채 AA- vs. 국고채



주: 3년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그림 16> 회사채 3Y - 국고채 10Y



주: 3년물, 민평3사 기준
자료: Infomax, 현대차증권

〈표5〉 Credit Market 관련 뉴스

2025 년 국고채 발행 계획

정부,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 201 조 3 천억원으로 계획. 올해 대비 42 조 8 천억원(27%) 증가. 순 발행은 83 조 7 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67.9% 증가. 기재부, 국고채 순 발행 규모 확대는 국가채무 증가보다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수입을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2025 예산] 내년 국고채 201.3 조 발행…적자국채 86.7 조 〈 채권/외환 〈 기사본문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제 4 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1 차 사업장 평가 결과, 유의 ·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여신은 21.0 조원(유의 7.4 조원, 부실우려 13.5 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당국은 본 PF 규모(4.1 조원)가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사업장에 참여중인 시행사는 대부분(93.1%) 1 개의 유의 · 부실우려 사업장을 보유중으로 연쇄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

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 · 알림 | (fss.or.kr)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

상반기 순이익은 -3,804 억원 손실로 전년동기 대비 2,839 억원 감소하며 적자 폭 확대. 차주의 연체 증가 및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영향 등으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0.4 조원)에 주로 기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2%로 전년말 대비 3.77%p 상승

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 · 알림 | (fss.or.kr)

2 분기 증권사(60 사) 영업실적 종합

2 분기 증권회사(60 사) 순이익은 1 조 7,703 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9.3% 감소. 금감원은 (1) 증시 상승세 둔화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평가이익의 축소와 (2) 부동산 PF 충당금 적립 확대 등으로 인한 대출관련손익 감소를 전분기 대비 순이익 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

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 · 알림 | (fss.or.kr)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유보 배경 설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지목. 가계부채가 더 증가한다면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이창용, 금리 동결 비판에 쓴소리…"손쉬운 통화정책은 임시방편" 〈 채권/외환 〈 기사본문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시중은행 건설업 부실 대출 확대

상반기 5 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에 대한 부실 대출 비율이 1 년 새 상승.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작년 1.17%에서 올해 1.60%로 증가하며 건설업의 대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5 대 은행 건설업 부실대출 비율 급등…제조업의 5 배 달해 | 연합뉴스 (yna.co.kr)

금감원, 저축은행 및 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특정 저축은행 및 자산운용사를 검사한 결과, 해당 저축은행이 PF 대출채권을 자신이 투자한 펀드에 장부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이익을 과다 인식하고,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한 사실이 확인.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는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사실상 OEM 펀드를 운용. 금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

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 · 알림 | (fss.or.kr)

상호금융권의 회사채 시장 참여 확대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 참여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 부동산 PF 부실 정리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은 채권을 투자 대안처로 삼아 수익 다각화를 진행 중

부동산 투자 대안 찾아라 · · · 새마을 · 신협 회사채 시장 큰손 떠오르나 - 매일경제 (mk.co.kr)

부동산 PF 사업장 경 · 공매 본격화

추석 연휴 이후 약 10 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경 · 공매에 나올 예정. 앞서 PF 사업성 평가에서 밝혀진 13 조원 이상 규모의 부실우려 사업장 중 약 3 조원은 3 개월 이내 매각 또는 상각 결정되며 경 · 공매 대상에서 제외.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의 6 개월 이내 신속한 정리를 주문

10 조 부동산 PF 경 · 공매 본격화… 지방 사업장 매각 난항 전망 - 조선비즈 (chosun.com)

8 월중 가계대출 동향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8 조원 증가.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8.5 조원 증가하여 7 월의 전월 대비 증가폭인 5.4 조원 크게 확대. 금융당국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2 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수요, 주식투자수요 등을 가계 대출 증가폭의 원인으로 지목

보도자료(상세) | 보도자료 | 보도 · 알림 | (fss.or.kr)

서울 PF 매물 거래 현황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PF 부실 사업장의 대출채권 거래가 성사되며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는 상황.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유망 부지를 선점하려는 투자 수요가 증가. 대출채권을 새로 인수하는 업체를 통해 신규 자금이 공급되고, 개발 사업이 재개되는 등 PF 구조조정의 선순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금리인하 전 유망부지 확보…부실 PF 에 뉴 머니 몰려든다 | 한국경제 (hankyung.com)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한은, 국내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를 전망. 또한 물가는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전망.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기준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할 계획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 년 9 월) | 통화신용정책보고서(상세) | 간행물 | 뉴스/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 (bok.or.kr)

부동산 PF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가능성 우려

PF 의 전체 사업비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 단계에 있음. 만약, 금융권의 허용위험가중자산 금액은 그대로인채로 위험가중치를 높인다면, PF 대출 가능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 이에 대기업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중소 시행사는 자금 조달 상황 악화를 우려

PF 경색 심화 우려…자기자본비율 강화에 난리 난 개발업계 | 한국경제 (hankyung.com)

미 연준, 금리 50bp 인하 단행

연준, FOMC 에서 금리 상단을 5.5%에서 5.0%로 인하. 금년 인하폭 전망을 25bp 에서 100bp 로, 내년까지의 인하폭 전망은 125bp 에서 200bp 로 확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은 하향, 실업률 전망은 상향 조정하면서 완전고용 지원을 목표하고 있음을 강조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자료: 언론종합, 현대차증권

〈표6〉 ESG 뉴스

현대차 체코공장, 올해 '친환경차 누적판매 50 만대' 달성 전망

현대차는 지난 7 월 기준 체코 공장에서 누적 45 만 8 천 99 대의 친환경차를 출고해 50 만대 판매 달성을 앞두고 있음. 체코 공장은 최근 유럽 중동부를 강타한 저기압 폭풍 '보리스'로 인한 피해 복구에도 앞장서며 현지 '국민 기업'이자 현대차의 유럽 핵심 생산기지로 역할 중. 올해 1~7 월 기준 체코 공장의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38%로, 생산 차종이 다양한 국내 공장(30%)보다 8% 높은 모습. 유럽 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차의 현지 시장 점유율은 2008 년 1.9%에서 지난해 4.1%로 두배 이상 상승

현대차 체코공장, 올해 '친환경차 누적판매 50 만대' 달성한다 | 연합뉴스 (yna.co.kr)

한은 "기후공시 내부적으로 논의 중"

한국은행,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에 탈탄소 전환 시설투자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제기. 한국은행은 기후공시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스코프 3 공시는 한국은행에게도 어려운 과제라 공시가 시행돼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 한은의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에는 막대한 규모의 외환자산 운용을 위해 매입한 자산과 국내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RP 증권대차 담보대출 같은 자산의 배출량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

한은 "기후공시 내부적으로 논의중"…단계적 시행 가능성 | ESG 경제 (esgeconomy.com)

"국내 은행, 탄소배출 목표 이미 초과…평판 리스크 직면"

국내 은행들이 '금융배출량'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평판 리스크와 글로벌 투자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이미 국내 은행들이 배출한 수치를 살펴보면, 2030 년까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태라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 상승. 국제기구들은 기후 공시를 확대하며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기후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게끔 유도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금융배출량 감축 노력을 강화 중.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의 금융배출량은 약 1 억 5750 만톤으로 추산

"국내 은행, 탄소배출 목표 이미 초과…평판 리스크 직면" | 조선일보 (it.chosun.com)

유엔기구들 "탈탄소공약 다 지켜도 온난화 막을 확률 14%"

세계 각국이 탈탄소 공약을 빠짐없이 이행해도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는 지구 기온 상승폭 제한선 밑으로 온난화를 억제할 확률이 1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등장.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 등 기후, 환경 분야 국제기구 연합체인 '유나이티드 인사이언스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극심하고 광범위한 기상 이변을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상승폭 2 도와 1.5 도 제한선 밑으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려면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정책에 기반한 배출량 예상치보다 각각 28%와 42%씩 줄여야 한다고 지적

반유엔기구들 "탈탄소공약 다 지켜도 온난화 막을 확률 14% | 연합뉴스 (yna.co.kr)

세계적 기업들 'VCM' 무늬만 탄소 상쇄…사실상 '그린워싱'

셀, 세브론, 텔타항공, 보잉 등 세계적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탄소 상쇄를 적극 활용하지만, 탄소 감축 효과가 실제보다 크게 과장되었다는 분석 결과 제시. 기업들은 '자발적 탄소 시장(VCM)'에서 배출권을 구입, 자신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지만, 값싸고 질 낮은 배출권에 의존하는 사례 다수. 연구팀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이 저렴한 배출권 구매를 뚜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적 기업들 'VCM' 무늬만 탄소 상쇄…사실상 '그린워싱' | ESG 경제 (esgeconomy.com)

자료: 언론종합, 현대차증권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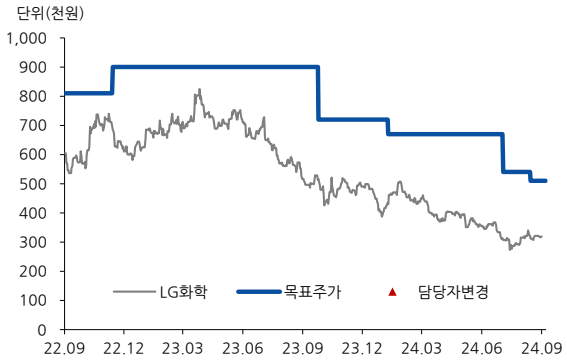
일 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2.04.22	BUY	1,000,000	-42.08	-36.60
2022.10.22	AFTER 6M	1,000,000	-37.51	-20.70
2024.01.23	BUY	600,000	-33.02	-19.00
2024.07.23	AFTER 6M	600,000	-43.93	-42.75
2024.07.31	BUY	540,000	-37.13	-29.81
2024.09.24	BUY	540,000		

▶ 최근 2년간 삼성SDI 주가 및 목표주가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일 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2.07.28	BUY	810,000	-21.23	-8.64
2022.12.06	BUY	900,000	-23.49	-8.33
2023.06.06	AFTER 6M	900,000	-30.75	-16.44
2023.10.17	BUY	720,000	-35.00	-27.64
2024.02.01	BUY	670,000	-40.19	-24.18
2024.07.26	BUY	540,000	-43.50	-37.04
2024.09.06	BUY	510,000	-38.03	-36.96
2024.09.24	BUY	5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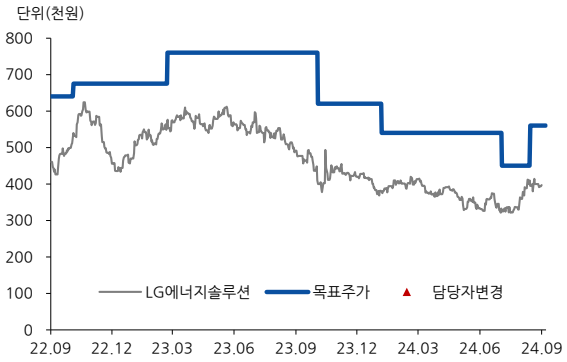
▶ 최근 2년간 LG화학 주가 및 목표주가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일 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2.03.31	BUY	640,000	-32.96	-20.16
2022.10.01	AFTER 6M	640,000	-23.48	-17.34
2022.10.27	BUY	675,000	-22.09	-7.56
2023.03.16	BUY	760,000	-26.18	-19.47
2023.09.16	AFTER 6M	760,000	-38.09	-33.29
2023.10.26	BUY	620,000	-32.40	-20.40
2024.01.29	BUY	540,000	-30.84	-22.31
2024.07.26	BUY	450,000	-21.59	-8.44
2024.09.06	BUY	560,000	-29.16	-26.07
2024.09.24	BUY	5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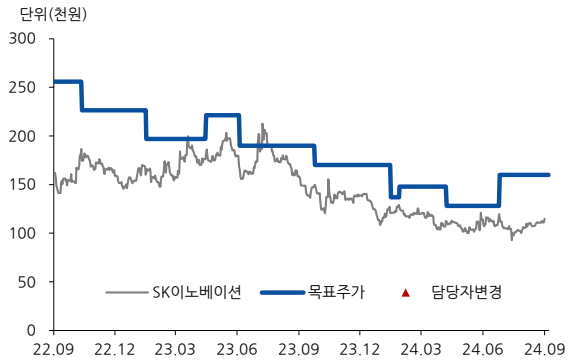
▶ 최근 2년간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및 목표주가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일 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2.08.01	BUY	255,827	-31.74	-19.04
2022.11.04	BUY	226,309	-27.72	-19.57
2023.02.08	BUY	196,790	-14.07	1.50
2023.05.08	BUY	221,389	-16.79	-8.22
2023.06.27	M.PERFORM	189,903	-10.14	11.92
2023.10.17	M.PERFORM	170,000	-22.30	-8.53
2024.02.07	M.PERFORM	137,000	-9.45	-5.91
2024.02.20	M.PERFORM	148,000	-21.34	-15.14
2024.04.30	M.PERFORM	128,000	-15.16	-5.47
2024.07.18	BUY	160,000	-33.78	-28.25
2024.09.24	BUY	1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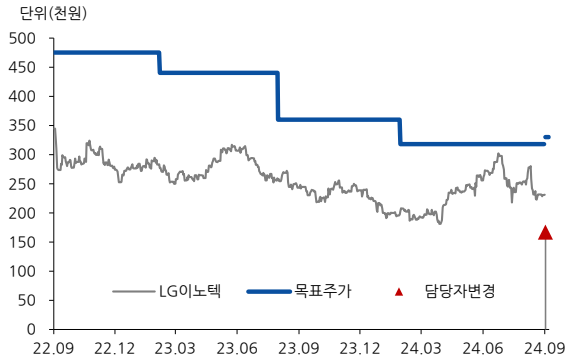
▶ 최근 2년간 SK이노베이션 주가 및 목표주가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일 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2.09.01	BUY	475,000	-38.34	-23.37
2023.02.28	BUY	440,000	-36.72	-27.95
2023.08.23	BUY	360,000	-35.46	-24.44
2024.02.21	BUY	318,000	-26.74	-5.03
2024.08.21	AFTER 6M	318,000	-22.92	-11.95
2024.09.24	담당자 변경	담당자 변경	-	-
2024.09.24	BUY	3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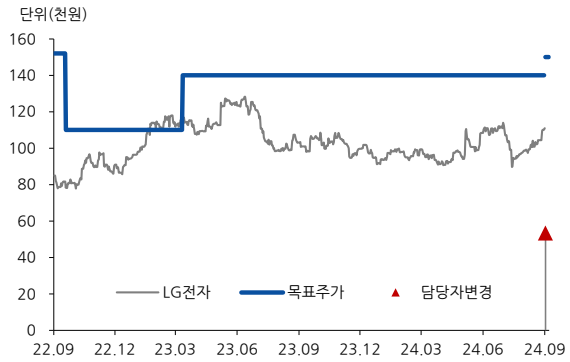
▶ 최근 2년간 LG이노텍 주가 및 목표주가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일 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2.05.25	BUY	152,000	-38.40	-30.26
2022.10.11	BUY	110,000	-11.28	7.18
2023.04.03	BUY	140,000	-19.62	-8.43
2023.10.03	AFTER 6M	140,000	-28.50	-18.64
2024.09.24	담당자 변경	담당자 변경	-	-
2024.09.24	BUY	1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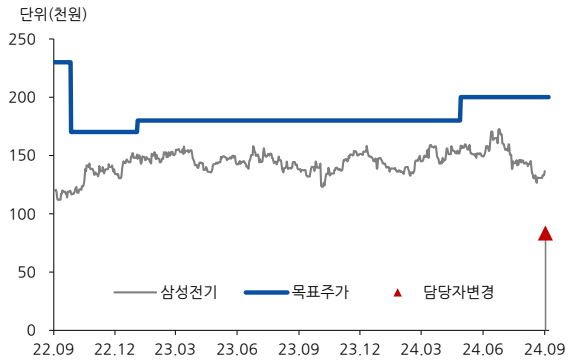
▶ 최근 2년간 LG전자 주가 및 목표주가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일 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2.05.20	BUY	230,000	-41.13	-30.65
2022.10.19	BUY	170,000	-20.09	-10.59
2023.01.26	BUY	180,000	-18.23	-12.22
2023.07.26	AFTER 6M	180,000	-20.14	-11.72
2024.05.21	BUY	200,000	-24.77	-13.65
2024.09.24	담당자 변경	담당자 변경	-	-
2024.09.24	BUY	200,000		

▶ 최근 2년간 삼성전기 주가 및 목표주가



▶ Compliance Note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견 분류

▶ 업종 투자의견 분류 현대차증권의 업종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현대차증권의 종목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MARKETPERFORM(M.PERFORM)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 ~ +15%P 이내
- SELL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투자등급 통계 (2023.07.01~2024.06.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56건	91.2%
보유	15건	8.8%
매도	0건	0%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